

## 아사마트의 다리

태고 적에, 수백년 전에, 아라마시 산맥에 울랍이라는 용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헤아릴 수 없는 가축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재난과 불행도 그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들이 불길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광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천둥치고, 번개치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등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산의 호수와 강들은 경계를 벗어나서 계곡의 푸른 들판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흐름은 계속 늘어났고, 울랍의 가축떼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용사 울랍은 힘이 빠진 소와 말과 양들을 산맥에서 멀리 떨어진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삼일 낮과 삼일 밤 동안 울랍은 자신의 가축떼를 계속 데려왔지만, 모두를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대장장이 아사마트는 그 재난에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칠일 방낮동안 아사마트는 철을 단련했고, 땅의 꽃과 비슷한, 놀라운 정도로 훌륭하고 빛나는 철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철다리 양쪽 중의 하나는 아라마시 산맥에 있었고, 또 다른 쪽은 불가 강가에 있었습니다. 울랍의 어머니는 굶주린 가축떼를 시끄럽고 천둥치는 산맥에서 아주 푸른 초원으로 그 다리를 따라서 멀리 쫓았습니다. 그 가축떼가 다리를 건너간 뒤에는 즉시 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비가 내리는 동안 구름 건너 볼 수 있는 아치를 추바시 인들이 아사마트의 다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